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드디어 대학으로 가는 길 10강 완강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친구들, 학부모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얻었던 전략과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최적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에 꼭 입학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지막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10개, 총 20개의 Q&A 파트를
만들어놨는데요. 열한 번째 Question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 질문이
정규동아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어져서 갑니다.

자, 자율동아리를 해야 하나요? 1개만 가능하고 30자
이내만 적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모든 활동이

부담이 됩니다. 학교에서는요. 공부가 일단은 메인이죠.
어떻든 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활동이 진짜 많아요.

특히 고1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정말로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활동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특히 이제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 2, 3학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기재에 대한

어떤 제한의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제한폭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자율동아리 얘기했어요. 자율동아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혹은 전공,

정규동아리의 어떤 균형점을 맞추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정규동아리가 전공적합성이 강조되면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업역량이라든가 관심 분야.
전공 분야가 관심 분야에 집중돼 있으면 자율동아리는

전공적합성. 물론 정규동아리가 전공적합성의 강조라고
해서 자율동아리는 전공적합성을 강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둘 다 전공적합성 강조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자율동아리는

정규동아리의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주제로
말이죠. 그런데 고1이 문제입니다. 고1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가 1개만 돼요. 고2, 3은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5개를 하든 제한폭의 어떤 제한이

없어요, 개수에 대한.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하나만. 2개 활동해도 돼요. 1학년 때 해도

되는데 기재가 되는 건 하나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몇 자? 30자.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또 개인 활동

기재가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설명만 30자만 들어가요.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들은 동아리 소개, 활동 소개, 학교 소개, 선생님 소개 원하지 않는다고요. 대학들이 원하는 자료는

학생 본인에 대한 소개를 원합니다. 학생에 대한 역량, 학생의 전공적합성,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하는 거지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생부에서 얻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율동아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빼든가 그렇지? 이게 뭘니까? 동아리 설명만 가능하다는 게. 그런데 어차피 이제 물을 엮질러

졌으니까, 그러면 과연 수상이랑 비슷하죠. 수상이랑 자율동아리가 굉장히 나름 학종에서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수상도 확 줄죠. 자율동아리도 확 줄어요. 수상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자율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나요? 물론 무조건 해야 되는 활동은 없어요, 학종에서.

학종에서 활동의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과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질 높은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율동아리 활동 학종 지원하는 학생치고 거의 90% 이상이 자율동아리

활동합니다. 해요. 물론 안 한다고 해서 불합격하느냐? 그건 아니죠. 활동 하나인데, 활동 하나가 없다고 해서

불합격되는 시스템은 아니죠. 다른 항목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면 그건 OK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율동아리는 하면 좋아요.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서 나올 수 없는 영역을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나타내왔으니까 여지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죠,

학생부 내에서 최소한은. 왜냐하면 30자로 줄어들었고요. 그것도 동아리 활동 소개니까 별로 그렇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정보를 학생부의 자율동아리 칸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소개서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충분히 자율동아리에 대한 언급이 가능합니다. 학생부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자율동아리의 활동을 자기소개서에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메인이 될 수는 없죠.

학생부에 그 정보가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학급소모임 활동으로 한번 전환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학급소모임은 학급 특색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에는 기재가

가능하겠죠.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자율동아리
활동을 그대로 학급소모임 활동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활동이 겹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 명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했었던 보고서나 발표의 내용을 자율활동이나 어떤 거?
진로활동에서 좀 약간 살짝 바꿔서 하면

충분히 기재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율동아리 즉, 동아리
칸에 담을 수 없던 내용을 학급소모임을 또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학급소모임 활동과 자율동아리
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율동아리 활동 내용이 동아리 칸에 적을 수 있었거든요.
동시 기재가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자율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학생부에 담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뭐로 담으면 돼요?

그거를요. 학급소모임으로 활동하시면 되죠. 그러면 담을
수 있겠죠. 어디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일석이조의 활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자율동아리 활동

하시고요. 동아리 활동에 담지 못했던 자율동아리 활동의
모습을 학급소모임으로 바꿔서 하시면 충분히 그 내용이

자율활동에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담임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야겠죠.

물론 이러는 건 안 돼요. 선생님 저 자율동아리 활동을
할 건데요. 이거를 학급소모임 활동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야죠. 자율동아리 활동을 뭐 A라는

명칭을 붙였으면 학급소모임 활동은 B라는 명칭을 붙이면
돼요. 그리고 활동 내용은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서

해주시면, 왜냐하면 자율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학급소모임

활동으로 해서 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학급소모임
활동으로 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거? 자기소개서에 쓸 경우에는 자율동아리를
쓰기보다는 학급소모임의 활동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 학급소모임 활동 그 내용이 자율활동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게 열한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재에 그 활동을 내용을

답을 수 없기 때문에 학급소모임 활동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 자율동아리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우회하는 방법이라는 거. 제가 편법 아닌 편법 알려드렸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시를 무려 70% 이상 넘게 선발하는데 굳이 수능 공부해야 돼요? 내신 공부하기도 바쁘는데, 활동하기도

바쁘는데. 이런 고민하는 친구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수능 공부 안 하는 고3도 진짜 많습니다.

수능장 일단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이 100이라고 한다면, 접수하는 인원. 일단 10%는 빠져요. 90명 정도만 실제

수능을 보러 갑니다. 이제 학업 인구가 주는 걸 감안하면 그전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수능을 많이 안 보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경험으로 가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비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또 아이들이

수능최저가 없는 전형을 많이 지원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능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결론은 하는 겁니다.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 간단해요. 수능 전에 접수를 하는 건 수시입니다.

수능 이후에 하는 건 정시예요. 둘의 차이는 없는 거죠. 접수 시기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많이 갑니다. 물론 논술 같은 경우는 논외기는 하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 100으로 가요. 수능 접수 시기에 따라 수시와 정시로 나누는데 하필이면 그 전형 자체도 나뉘지죠.

뭐 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은 대부분 다 수시에 들어가 있고, 정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능 100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의 어떤 대결 구도가 그려지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정시는 뭐 말해봤자

목이 아프죠. 수능 100이니까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에서도 중요하죠. 왜? 수시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수능최저등급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쓰고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도 거의 40% 정도의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종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이 적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수능최저를 포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생각보다

수능의 영향력은 수시에서도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하는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를 지원하든, 정시를 지원하든지 말이죠. 특히 수시 지원할 때 기본 전략은 뭐냐?

정시 가능 대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이라든가 9월 모평을 통해서, 혹은 매달 보는

학력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확보한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각 업체에서 만든 배치표가

있잖아요. 배치표에 나온, 배치표가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배치표에 나오는 점수대의 대학

그게 보통 뭐니까? 자기가 정시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이잖아요. 수시는 정시 때 지원 가능한 이상의

대학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정시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은 굳이 수시 때 지원할 필요가 없죠. 왜?

정시 때 쓰면 되는 거니까. 보통 우리는 수시는 6개를 쓰죠. 정시는 3개의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보통 기준은

뭐로 봐야 돼요? 정시 가능 대학보다 위쪽을 수시로 쓰죠. 정시 가능 대학을 수시로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정시라고 하는 수능 점수를 가장 말이 좀 모호하기는 한데 객관적인 일단 점수

기준점이죠. 전국 단위 비교가 가능하니까 가장 객관적인 자기의 어떤 점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은 대학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니까? 자기가 정시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학력평가라든가 모의 수능 점수를 잘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수시 카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시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 공부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자기의 역량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건 맞아요. 더군다나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최저등급이 있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하더라도, 6개 몰방을 하더라도 자기의 주 전략

자체가 정시보다는 수시라 할지라도 수능최저를 위해서라도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과목의 교과를 해야 되지만 수시 최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어떤 범위는 줄기는 줄죠.

줄기는 줄지만 어쨌든 수능 공부는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수능최저가 들어가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경쟁률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명목 경쟁률 즉, 수치상 나오는 거 있죠?

몇 명의 학생이 지원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그 학과가

어느 정도 충족률을 보였고 수능최저, 그리고 어느 정도
충원이 됐느냐? 즉, 예비 몇 번까지 합격이 됐느냐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목 경쟁률도 보셔야 되고,
실제적인 충원율과 수능최저 충족률까지 계산한

경쟁률까지 보셔야 됩니다. 전년도 거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주냐면 크게 같은 경우에는

1/3토막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1/8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능최저가 확보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에 몰방하더라도,

수시가 자기의 제일 전략이라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하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요.

수능최저가 있잖아요. 수능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특히 고1, 2

지금의 고1, 2 같은 경우는 수능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공부를 안 한 세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1, 2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3
가서 진짜로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수능은요. 물론 정시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기도

하지만 수능최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목표는 후자가 더 가까워요. 정시보다는

수시가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의 제1 옵션이기 때문에
수능최저를 목표로 해서 수능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 얘기는 뭐죠? 모든 교과를 공부하기보다는
수능최저에 적합한 교과 2~3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기초 능력을 키우는 게 맞아요.
탐구역량 같은 경우, 탐구교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서 3학년 때 많이 놀리셔야 되죠.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1, 2 같은 경우에는

진짜 1, 2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을 탄탄하게 세우셔야 돼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3 때 어휘 공부 시작하면 여러분 힘들거든요.

이 정도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수능최저 충족이 되는 점수가 나왔어요.

혹은 모의평가에서, 그러면 당연히 실제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해지죠. 왜냐하면 수능최저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수능최저가 있는 모든
대학이라든가 전형은 다 배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의 카드를 못 쓰는 거죠. 쓸 수 있는
꼭 자체가, 그러면 6개의 카드를 다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을 쓰니까 다 경쟁률이 높은 대학일 거 아닙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수능최저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아이들은 수능최저가 있는 대학도 나의 어떤
카드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쓸 카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금 점수,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보다 높은 대학을 수능최저가 없는

대학에 쓰고, 아니면 수능최저가 나온다면 그 높은
대학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수능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적으므로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라고 하는 건 선택이
아니예요. 정시냐 수시냐가 아니라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수시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수능최저가 확보가 되면 정말로 수시 접수할 때

전략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정말로 유리해지는
거죠. 특히 수능최저등급은 아! 최라고 나와 있는데

최저, 수능최저등급은요. 매년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3이 되면 제발 좀 입시요강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입시요강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 학생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대학교 입시요강을

정리해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만 믿고 가는데
이 책들은 확정 짓기 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항상 지원 대학의
입시요강을 꼭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수시에 쓸 6장의 카드 그 대학의
입시요강만큼은 책자를 받든가 최소한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을 받아놓고 밑줄 쳐 가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전년도와 뭐가 바뀌었는지. 많이 바뀝니다.

입시요강을 그냥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수능최저가 바뀔 수도 있고요. 접수 날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면접 날짜라든가 논술 날짜가 수능
전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수시 70%이긴 하지만 뭐 공부해야
된다? 수능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종의 기본 전략 뭘니까? 내신의 비중이
크므로 시험을 잘 봐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자, 요즘 학생부 기재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교육과정 자체가 수업이 다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토론도 시켜보고, 프로젝트도

해보고 학생이 직접 수업을 진행해보기도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주제 탐구활동을 주로 하라고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교과세특이 좋거나 학생부가 좋아졌는데

굉장히 문제였죠. 그런데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학생의 학생부에 이런 내용이 기재돼요. 왜냐하면
관찰할 내용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은 쓸 수밖에 없죠.

그전에 그렇게 특정 학생들만 몰방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활동 자체를 많이 안 하죠.

애들이 활동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관찰의 기회가
적어요. 그런데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죠. 탐구활동도 많이 하고 보고서 활동도
많이 하고, 심지어 조별 프로젝트 활동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기록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부분 학생들의

학생부의 질은요. 그전에 비해서 정말로 높아집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부 자체는 지금

상향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전 학생들한테서
찾기 힘들었던 탐구활동이 거의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당연히 질과 양 모두 다 많아져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되다 보니까 비슷한

기록이 많아요. 왜냐하면 활동 하나를 가지고 거의
모든 학생이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비슷한

기록이 남겨지게 돼요. 학생부의 양적, 질적 성장은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 양적, 질적 성장이 비슷하게

기재가 된다는 게 많습니다. 문제는 각 대학들은
양보다는 질을 본다 그랬죠? 그리고 동일한 평가 문구,

즉, 학생부 내에서 동일한 문구는 그냥 블라인드
처리해버립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한마디로 평가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옆의 친구와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에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활동과 기재의 차별화 즉, 여러분들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브랜드화 작업을 하셔야 되죠. 즉, 선생님이 시키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주는 과제, 내주는 수행평가 내에서도 차별화가 돼야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탐구활동, 발표활동, 주제보고서 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 주제 활동을 많이

하셔야지만 학생부 내에서의 동일한 기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 주제 활동은 같을 수가 없죠.

그룹 활동은 같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13명의

학생부가 동일하면 그 활동은 빠지게 된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도 점차 이렇게 가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룹 활동 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화를 줘야겠죠. 그룹 활동 전체로

들어가는 문구 말고 각자 활동을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셔서 학생부에 따로따로 기재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전공탐색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공탐색에 대한 고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다른 고민을 동일한 활동을 할 때에도

적용을 시켜야겠죠. 과제는 동일한 과제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성찰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내용이

뭘로 됩니까? 차별화가 되고 브랜드화 돼서 기재된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따라서 독서라든가 진로활동이

정말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 됩니다. 독서는 어때요? 다 다른 책 읽잖아요. 진로활동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교과세특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드러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과세특에 어떻게 이러한 활동을 연계시킬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기재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도 정말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글로 하는 평가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차별화가

점점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학생부 양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의 비중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

같기는 해요. 뭐 내신이라든가, 수상실적은 또 빠지죠.
한 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신의 비중이 좀

커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부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아주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니까? 전공과 연계된 교과에 대한 어떤 성적 만큼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특히 입시 시즌에 가까운 성적,

3학년 1학기죠. **3학년 1학기** 때는 정말로 최소한 만큼은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내신, 특히 좋은 교과 내신
있죠? 좋은 전공 관련 교과 내신을 베이스로 깔고

여기에 차별화 있는 전공 연계 활동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 학생부는요. 이렇게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되고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은
1단계 통과, 그리고 마지막 대학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연계되는 교과의 성적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활동, 혹은 남들과 같이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색깔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차별화된 학생부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학생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정말로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동일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정말로

많은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져요. 학생부에 기재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록이 많이

비슷해져요. 전공특강, 학교 행사, 자율활동 보시면 정말로
많은 학교 내 학생들이 **Ctrl+C, Ctrl+V** 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잘못된
거죠. 아이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보셔서 차별화된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안 합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 똑같은 활동을 해요. 전공특강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말아요. 보고서 안 냅니다.

학교에서 하는 자율활동 **HR** 시간에 성교육 듣고,
흡연교육 듣고, 학교폭력 듣고, 새학기 심리교육

받아요. 받고 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써주기는 써줘야 되는데 써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팩트만 이런 내용을 들음, 이런
교육시간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됨. 이것만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한 반의
학생이 똑같은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런 기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어떻게? 그 활동에 맞는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는 활동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내 활동할 때 먼저 활동이 있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전조사 해야 돼요.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끼고 배운 점 기록해주시고요. 후속 활동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하면 됩니까?

그 시간에 발표하거나 보고서 활동 하면 되죠. 특히
HR 시간에 벌어지는 성교육, 흡연교육 많잖아요.

교육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보호교육도 있고요.
세계시민교육 등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교육도 있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 맞는 활동을 꼭 집어서요. 그 시간에
발표하시라니까요. 활동하시면 정말로 다른 아이들은

그냥 무엇무엇에 대해서 배웠음인데 여러분의
학생부에는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조사해서

친구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발표함. 이런 게 기록이
기재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니까? 차별화가 되는 거고요.

그게 전공 연계 활동이라면 여러분의 브랜드가 딱
생기는 겁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만 쪽 보면
스토리라인이 그려져요. 그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학들은 비슷한 기록 배제합니다. 그렇죠?
배제해버려요. Ctrl+C, Ctrl+V 다 빼버립니다.

활동을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수상도 비슷하죠.
수상 요즘 최대가 몇 %입니까? 그 지원, 신청 가능한

그 시험을 본 학생의 최대 20%까지 상을 줘요. 100명이
신청을 하잖아요. 20명까지 상을 줍니다. 1등은 1명이고,

2등, 나머지 3등 가는데 3등 장려상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만약에 전교생이 참여했다 칩시다.

전교생이 만약에 400명이예요. 저희 학교가 400명인데
여기에 20% 갑시다. 최대 몇 명이예요? 무려 80명의

학생이 뭐가 들어가요? 그 수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는 거죠. 차별화가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웬만하면 전공과 연계된
교내대회 참가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그것을 중간 연계 단계로 해서 후속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상은 동일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활동은 다르겠죠. 이 내용은 어디에
소명하면 돼요? 학생부 내에 드러나기 힘들면

자기소개서 내에서 소명하는 거죠. 저는 이런 교내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탔건 안 탔건 이러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깨달아서 이걸 보완하고자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고,
탐구보고서의 내용을 교내대회와 연결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활동으로 쓰라는 겁니다.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 좋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결과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공이든 결과든 그 다음 활동으로 연계되는 활동이

되어야지만 그 활동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개인의 차별화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행사 중심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인의
역할이 기록이 돼야겠죠. 개인의 역할은 선생님이

잘 모르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직접 발표활동 하셔야

되고요. 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부를 기록해주시는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들이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알아야지 기재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행사나 수업 참여의

동기, 자세, 목표, 개인의 과정,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고서라든가 발표에 드러난다면 정말로 좋은

학생부 기재 내용이 나오겠죠. 각 활동에 대한 기록과
결과물의 제출과 발표들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사와의 소통, 기획 단계부터
최소한 중간중간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활동이 충분히 어필이
되고요. 그 내용이 학생부에 차별화되게 기재가 돼요.

저희 학교는 기재를 안 해요. 저희 학교는 활동을
안 해요. 저희 선생님은 제가 하는 활동 몰라요.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생부입니다.
남의 학생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자료입니다. 누가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학교 핑계, 선생님 핑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환경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소통하셔야 되고,

더 어필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사람, 어필하는 사람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중에 성공하려면

적극적이 되셔야 됩니다. 나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대는 것과 적극적으로 보이는 건 다른 겁니다.

물론 소통할 때의 자세라든가 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거 생각해 가면서 사회생활이니까, 이런 거

생각해 가면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결과를 위해서입니다. 자,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독서활동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독서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대학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항목이고요. 면접할 때 많이 질문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요. 독서 진짜 안 합니다. 특이하죠.

학중 시대라서 독서량이 늘기는 늘었는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독서활동을 안 해요. 물론 이유 알아요.

너무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학교 활동하기 너무 바빠서. 그런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하루에 책 30분 읽을 시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 보는 시간 그거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하루에 몇 시간 봐요? 제가 장담컨대 2시간 이상씩 볼걸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봅니다. 그 시간 중에

30분 할애 못합니까? 시간이 없었다. 변명이에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쉬는 시간,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는 시간, 자기 전 30분 시간. 공부하느라 바쁘다고요? 공부하는 시간 30분 줄이세요. 줄이고 독서하세요.

그게 더 유리한 겁니다, 학중에서는요. 자기의 주전공이 학중이라면 독서 하셔야 돼요.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다 변명이에요. 바쁜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독서하는 친구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는 성공하죠.

자기의 주전공이 논술이에요? 독서 안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학생부 독서 안 하면 좋아질 리가 없어요.

독서 안 하잖아요? 교과 성적 안 오릅니다. 폭넓은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탐구활동 안 되죠.

학생부의 좋은 질 안 나옵니다. 독서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독서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책을 읽는지를 아셔야 돼요. 즉, WHY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 무턱대고 추천책

학교에서 읽으래요. 읽는 친구 많아요. 읽고 땡이에요.
그게 목적이 있는 독서입니까? 아니죠. 양적 기록을 위한

독서예요. 양적 기록을 위한 독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성장을 위한 독서를 하셔야 되죠.

무조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그 목적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책을

읽고자 하는 목적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교과에서 모르는 내용이 발생돼서, 교과서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진로
찾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목적이든지 간에 책을 읽으면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거기서 끝냅니까? 아니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연계 활동을 해야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 해결이 됐습니다. 뭔가 목적을 이뤘어요. 그다음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후속 활동을

해야겠죠. 왜? 학습의 핵심은 연계와 후속 활동이니까.
중요합니다. 독서 활동 책을 읽을 수 있는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 찾은 답을 가지고 후속 활동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교과서나 수업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영어공부를 하다가 영어 지문에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 뭐 공유경제라는 게 나왔어요.
공유경제가 뭐지? 나는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유경제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공유경제 관련된 책을
읽어봅니다. 읽어 보다가 아, 이렇게 공유경제라는 게

이런 내용이고 요즘 21세기, 특히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사회에서 21세기 다 모바일폰을 갖고 다니고

공유라고 하는 게 철학이 되어 있는 시대에 대해서
경제라는 거 역시도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는구나.

아, 나는 경제계열, 상경제열 쪽으로 지원을 할
거니까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이 있는데 찾았습니다.

공유경제의 역할과 개념, 방향성을 찾았어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기서 얻었던 깨달음을 가지고

후속 활동 해야겠죠. 교내에서, 학급 내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하든가, 뭐 재 활용 나누기, 쉐어박스 같은 거

하든가 아니면 학교 전체 내에서 어떤 공유경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유경제와 관련된

보고서 활동을 하든가 탐구활동을 해서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활동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단순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거 같아.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찾은
진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다음 활동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독서를 이용하셔야 돼요. 독서라는 건 철저하게
출발점이거나 중간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는 아니에요.

WHY를 찾고요. WHY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 독서
활동을 하시고요. 그 활동 하는 와중에 WHY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 답을 가지고 후속 활동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독서를 수업 시간에

DNA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우다가 DNA에 유전자
지도가 새겨진다는 얘기를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새겨지지? 라고 해서 막 찾다가 커넥톱의
뇌의 지도라는 책을 읽었어요. 막 읽다가 아, 이렇구나.

아, 진짜 DNA 속에 유전자 지도가 새겨지게 돼서
인류가 성장할 때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놈프로젝트에 관심이
생겨서 게놈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 자유통아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학생부가 정말로 좋아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책만 읽고 끝내요.

그런 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은 그냥 과감하게
독서활동 기록만 하는 거 있죠? 양적인 독서에 넣고요.

연계, 모든 독서가 연계되는 활동하기 힘들어요. 가다가
딱 결정을 내야겠죠. 어, 이런 내용이 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네. 아, 이런 쪽은 별로였구나. 과감하게
끊고 그거는 그 내용만 독서활동에 기록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후속 활동이 나올 수 있는 다른 독서를
하셔야겠죠. 이런 활동을 해야지 체계적으로 독서활동이

빛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유명한 책, 어려운 책, 뭐 사피엔스,

또 뭐죠? 되게 어려운 책 많잖아요. 베스트셀러,
대학에서 추천하는 100, 서울대생이 읽어야 될 책,

이런 책들? 좋아요. 좋은데 가장 좋은 책은 뭐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다 어때요? 많이 읽어요. 뭐 좋은 책이니까 많이
읽겠죠. 많이 읽는다는 건 뭘까요? 비교대상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교수님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유명한 책 읽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선생님이, 하필 나의 면접관으로 오신 교수님이 그 책의
저자야. 어, 이 친구 이 책 읽었네.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겠죠. 물론 막힘없이 대답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또 면접의 특성상 막힐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인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인데 유명한 책이 아니야. 오히려 어필할 수도 있겠죠.

어, 이 친구 이런 책도 읽었네?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정도의 이제 책을 골라서 학생부에 특별하게

기재가 될 정도의 책이라면 충분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비를 하겠죠. 대신에 비교대상이 없잖아요.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름 이제 면접할 때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읽으세요. 베스트셀러도 좋고 유명하지 않은 책도 좋습니다. 물론 유명하지 않은 책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수준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끝까지 다 읽어도 되고요. 읽다가 여러분들이 WHY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죠. 발췌독도 가능합니다. 둘 다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독서의 목적에 맞게

완독과 발췌독 할 책을 고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발췌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완독 같은 경우에는 인생책 혹은 전공과 정말로 밀접한 관련 있는 책들은

완독하는 게 좋고요. 한 번 읽지 말고요. 인생책이라면 두세 번 읽어야겠죠. 여러분들 책을 적을 때

학생부의 다른 영역에 들어갈 책이라면, 뭐 교과세특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들어갈 만한

책이라면 최소한 완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 이상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독서활동을 하시면

정말로 힘들게 시간을 내서 읽었던 책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열여섯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1년만 더 있으면 입시가 다가오니까 자, 자기소개서는 언제

써야 될까요? 많은 친구들이 묻습니다. 1학년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 활동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써요?

앞으로 할 활동에 대해서 써보는 거죠. 일종의 계획서 역할을 하게 될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나중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떤 전체적인 활동의 map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학년도 앞으로 활동의

계획서 역할을 하게 되는 미래의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아요. 그런데 보통 자기소개서는요.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즉, 4학기 분량의 활동이 끝난 거죠.
4학기 정도의 분량이 끝난 겨울방학 때 써보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4학기면 거의 모든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3학년 1학기만 남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 쓰게 되면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하는 역할도 하고, 분석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결과를 어떻게 하면
되니까? 3학년 1학기 때 채우면 돼요. 3학년 1학기는

그래도 수능 공부에 좀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지금

트렌드 자체가 3학년 때도 탐구활동을 하고 독서활동
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 양은 1, 2학년 때에

비해서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시간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에 하려면 여태까지 자기
학생부를 분석해보고 분석 끝에 나와 있는 약점을

메울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가야겠죠. 뭐 활동에
탐구활동이 부족할 거 같으면 탐구활동의 어떤

마지막 점을 짚어주게 될 화룡점정의 활동을 한다면,
뭐 보고서 활동 이런 거 하겠죠. 아니면 좀 뭔가

공부가 부족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전공
연계 교과에 대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끌어올린다면가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학생부 분석을 해야 돼요. 특히나 3학년은 뭐니까? 진짜
제대로 된 대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교과를 써야 될지, 종합을 써야 될지, 논술을

써야 될지, 적성을 봐야 될지, 아니면 정시를 봐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대세가 학생부

전형이니까 자기의 강점이 학생부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률이 높은 학종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3학년 1학기 때 활동을 메운다 하더라도

아,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학생부가 안 나올 거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논술이나 정시 쪽으로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부

분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런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학종을 지원하고 특히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전형에 지원할 학생들 중에 정말로

50% 정도 되는 엄청난 수의 많은 학생들이 언제 쓰느냐? 3학년 여름방학 들어갈 때부터 씁니다.

3학년 여름방학은요. 자소서 쓰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름방학은 뭐 하는 시기입니까? 수능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어떤 거? 자신이 약한 교과, 특히 탐구 교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기가

3학년 여름방학입니다. 이 시기에 자소서 쓰잖아요? 수능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한 달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전체적인 수능 밸런스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제발 학종에 대해서 미련이 있거나 학종을 쓸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제발 자기소개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아셨죠? 더군다나 자기 분석도

하고요. 자기가 지원할 대학, 보통은 타겟분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원할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그 대학, 그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학종 관련 자료들, 자소서 쓰는 법, 면접법,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까지 다 보셔서

이 대학에 맞는 인재상이 뭐고,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을 해야지 자기의

분석을 통해서 대학에 맞는 것들을 뽑아서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겟분석도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를 분석하셔서 자기분석을 해야 돼요. 2개를 동시에 해야지 최적의 자기소개서가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타겟분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분석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 충분한 분석 활동이 있어야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기소개서 언제 쓰라고요? 지금 바로 써보기를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중요한가요?

중요하면 비중이 얼마가 될까요? 많이 물어봅니다, 진짜로. 고2, 3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되죠.

학종의 보통 기본 베이스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을 봐요.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가 빠지죠. 자기소개서와 자소서만을 가지고

1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동시에

다 들어가죠. 굉장히 영향이 큰데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에 있는 학생부보다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교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쓴 거예요. 대학들은 100%

신뢰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쓰기는 했지만 누가 쓰는 거예요? 지원자인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당연히 어떤 게 비중이 커요? 학생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큼니다.

대신에 학생부라고 하는 건 제3자인 교사의 시선으로 썼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특히 기재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기재 분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담아 있지 못하는 학생의 활동에 대한 동기, 과정, 느끼고 배운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기본 베이스는 학생부의 질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학생부가 정말로 좋은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합격합니다. 대신에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잘 쓰더라도 학생부 베이스가 약하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의 보조자료이면서 소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학종에서의 합격/불합격을 결정짓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대신에 학생부가

많이 부족하면 안 돼요. 조금 부족해. 그런데 이 부족한 면을 자소서 읽어보니까 어, 이 친구는 한번

불러볼 만할 거 같은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생부가 정말 뛰어난 친구라면

자기소개서 봤을 때 자기소개서 재미가 없어요. 스토리 라인도 그럭저럭해. 그런데 학생부가 너무 좋아.

그러면 당연히 부르죠. 기본 베이스가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들은 부족한 학생부,

많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한 학생부를 메울 수 있는 보완재 역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요. 미사여구 쓸 필요 없어요. 미사여구 아예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왜 쓸까요?

쓸 내용이 없으니까 미사여구 쓰는 겁니다. 글자수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미사여구보다는

과정과 느끼고 배운 점, 성장 포인트를 정말로 에피소드와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평상시에 활동에 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어느 정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뭐가 기억이 안 나느냐? 느끼고 배운 점과

성장 포인트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그만큼 써버립니다. 그리고 느끼고 배운 점 조금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철저하게 기록 활동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의 스토리 라인을

항상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전 전의 활동과 그 이후의 활동을 고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고려하지 않으면 이 활동 간의 연계가 안 생겨요. 활동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뭘니까?

스토리 라인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단막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학생부는 미니시리즈예요. 미니시리즈가 돼야

되는데 미니시리즈가 되는 게 아니라 각 화마다 독립적으로 가는 거예요.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학생부는 그렇게 좋은 학생부가 아닙니다. 대신에 약간 학생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얼키설키 이렇게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이 활동과 이 활동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활동 같아. 그런 활동에 대한

소명을 뭘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의 역할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예요.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인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건 학생부예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자기소개서로 메꾸는 거지 이 학생부

전체를 자기소개서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점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항목?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꽤 많아요. 일단 표절, 대필, 대리 작성, 허위사실,

부정확한 사실 이거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표절 같은 경우는 유사도 검색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 걸리잖아요? 불합격입니다. 운이 좋아서 넘어갔는데 입학하고 나서 봤더니 이 학생은

부정으로 쓴 거야, 자기소개서를. 과감하게 입학 취소까지 해버립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표절 같은

경우에는 5%까지는 보통 의심수준으로 봐요. 그런데

보통 5% 안에 머물죠. 그다음에 30%까지 뜨면

전화해봅니다. 학교 가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30% 이상이 되면 감점이 되기도 하고, 평가제외.

바로 탈락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확인해봅니다. 학교에 가서 서류 확인해보고, 선생님과 인터뷰도 해보고

학생이랑도 얘기를 해봐요. 여기서 웬만하면 다 걸러진대요. 이렇게 돼서 걸리면 불합격이 됩니다.

일단 표절과 남이 써주는 대필, 허위사실 기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 자기가 했어요. 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쓰면 0점 처리입니다. 자, 일단 공인어학성적 학생부에도 안 들어가죠.

자기소개서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토익, 토플 같은 거. 그다음에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수상입니다.

당연히 학생부에 기재가 안 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이게

교내대회라면 가능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런 대회 있죠? 경시대회, 교외경시대회, 교외올림피아드 대회들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창의적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활동, 이런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활동이라면 역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나와요. 교내 활동 3가지 쓰는 건데 학교장의 허락을 맡은 교외활동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외활동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교외활동이 공인어학성적이라든가 교외 수학/과학/외국어

경시대회와 관련된 거라면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추가된 게 뭐냐면 논문이라든가 도서,

발명품 특허, 해외활동, 해외 봉사 같은 거, 교외 인증 당연히 안 됩니다. 어학연수도 안 되고요. 특히 이거

자신의 가족. 부모님, 친인척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것. 특히 이제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지원동기 쓸 때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면 선생님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가 뭐 보건계열 쪽이면

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 지원동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해요.

제가 해외에서 살고 있을 때, 충분히 뭐가 나오니까? 사회적 지위 암시하죠.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외에서 살았던 거를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저희 아빠 회사에서는요. 안 됩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거 심지어

0점 처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대필, 표절 안 됩니다. 허위사실 기재도 안 돼요. 그리고 교외수상. 특히 외국어, 수학, 과학 관련 교외수상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였죠? 공인어학성적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혹은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쓰다가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어디에? 입학처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 안 되고요. 자기가 지원할 만한 대학,

지원할 만한 대학의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저 이런 내용 쓸 건데 써도 되나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입학처에서 얘기해줘요. 됐죠. 자, 열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별고사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적성이 있을 수 있고, 논술도 있어요. 여기의 기출문제 얻고 싶어 하죠. 어디에서 얻습니까?

당연히 어디겠어요?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요.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 않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고3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고1 학생들도 들어가 보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매월 아, 매월이 아니죠. 매해 3~4월달에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그 대학교가 본 대학교의 본고사 있죠? 대학교 고사. 면접이든 논술이든

적성 같은 거 여기에 대한 총망라한 분석집을 냅니다. 기출문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출제의도, 출제범위,

모범정답 이 정도가 다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논술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각 대학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계열이 나오고요. 이런 교과목의 출제를 했습니다. 시간은 이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전체 몇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제시문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출제의도라든가 시험범위까지 쪽쪽 나옵니다.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는 반드시 꼭 보셔야 돼요. 특히 자기가 수시를 쓰는데 그 수시를 지원하는 대학이

대학교의 고사를 본다? 반드시 해당 대학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논술 치기 전에 모의논술을 칩니다. 봄과 여름쯤에, 무조건 그 대학의

논술을 칠 학생들은요. 당연히 모의논술 쳐보셔야
됩니다. 가서 보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무조건 쳐보시고요. 그리고 웬만한 대학 같은
경우는 해설서와 해설가이드까지 다 올려놔요, 홈페이지요.

보시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논술
채점 포인트가 달라요. 출제 포인트도 당연히 다르죠.

이거를 파악하셔야지만 시험 볼 때 맞춰서 준비
가능하고요. 특히 요즘 대학들은 정말 친절하게

가이드북 많이 만듭니다. 학종 가이드북. 학생부의 평가
이렇게 하고요. 면접준비 이렇게 하고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친절하게 설명하고요. 논술가이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심지어 전공, 우리 대학에는 이런 과가 있는데요.
이런 과의 특징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거 배우고요.

나중에 이런 계열로 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대학별로 가이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 가이드 자료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가이드 자료는 그 대학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 특히 1학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과 상관없이

가이드 자료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가이드 정보가 나옵니다.

정말로 좋은 자료예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프로그램도 없고요.
교내대회도 없어요. 선생님들 기록도 안 해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종은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
대한 평가 합니다.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학생에 대한 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그 학교에 대한 평가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요. 이 학교가 프로그램이 많구나.

아, 그렇다면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이 정도 참여율은
보여줘야지.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평가해봤더니 활동이 별로 없네. 그러면 이 학교 출신의
학생들은 그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봐야겠구나.

즉, 뭐니까? 개개인의 평가에 대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뭘 먼저 한다고요? 학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학생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니까? 합격자의 분포를 보면 나와요. 합격자의 분포를 보면, 물론 많이 보내는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합격자 고등학교 수가 늘었어요. 왜?

이런 고등학교의 환경을 감안해서 그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교내대회가

없다면 없는 상황 속에서 학생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자기가 직접 보고서 만들어보고,

수업 시간에 발표. 교과세특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짧아요. 발표하시고, 발표한다는 데 어떤 선생님이

막겠습니까? 안 해서 문제인 거지 하는 건 다 써주십시오. 발표하시고, 보고서 쓰고, 프로젝트 해보고,

팀독서 해보고, 독서토론 해보고 하셔야 돼요. 학습소모임 만들어서 담임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적혀야 됩니다. HR 시간에 하는 교육 시간 때 전공과 관련 있는 내용 탐구활동 하셔서 발표활동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자체의 활동이 없더라도 충분히 학습소모임, 교과세특 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강점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누구 탓합니까? 학교 탓하고

선생님 탓해요. 탓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학생부에 담기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저 학기 말에

다 보고서 냈는데 선생님이 안 써줘요. 학기 말에 내니까 안 써주시죠. 소통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기 말에 자기가 제출한 보고서가 교과세특에 적히지 않았다고 수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행 단계부터 얘기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보고서 쓰기 전에 그 선생님과

소통한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서 단계부터 중간중간 물어볼 거 물어보고 소통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100% 적힙니다. 안 적힌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막장이 아니고서는 중간중간

소통한 학생들 써줍니다. 없어서 문제인 거죠, 선생님들은요. 그런데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자료 내라니까 그것만 딱 내요. 써주겠습니까? 써주더라도 굉장히 짧게 써주시죠.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의 학생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특히 대학교는 모든 학교가 대학입시에서 고교프로파일 제출해요.

거기에서 교내대회 몇 개 있는지, 수상은 몇 명 하는지, 동아리는 몇 개고 자율동아리는 몇 개 있는지 다 냅니다.

이런 활동을, 보통 특색 프로그램이 뭔지 다 내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심지어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각 고등학교에 갑니다. 직접 가서 봐요. 활동에 대한 틀을 만들어놔요. 학생에 대한 틀을요.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그 틀에 맞춰서 학생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일반고 학생들이

학종에 얼마나 합격을 많이 합니까? 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질 자사고와 특목고 정말 엄청납니다,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합격생이 대부분 누가 나와야 돼요?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학생들 정말로 많이 합격합니다, 학종으로. 왜? 학교의 노력도 보기는 하지만

그거는 전체 틀로 봐요. 대신에 학생의 노력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학종은 양적 평가 아니에요. 질적 평가입니다. 질적인 평가도 상대평가로 진행이 돼요.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수업이나 독서 등의 다양한 출발점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모습을 어디에

담겨야 됩니까? 학생부에 담겨야 돼요. 그런 내용이 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소통하셔야 되고요.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 후속 활동 연계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업에서 자기의

관심분야에 대한 발표, 조사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것만 하면 학교 프로그램 부실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학교 프로그램에 적힐 수 있는 경우는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뭘니까?

교과세특이잖아요. 한 교과당 500자입니다. 1년에 우리가 보통 교과 8개 되잖아요. $8 \times 5 = 4,000$ 자입니다.

4,000자 분량의 엄청난 이 글 기재량이 교과세특을 통해서 드러나요. 학종은 더군다나 교사 1명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특정 교과의 선생님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정말 안 써준다든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나머지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면 좋다고 평가합니다, 대학들은요.
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평가할 리는 없잖아요. 이러한
걸 감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에

자발성+탐구력+발전가능성+노력하는 모습 담겨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학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교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짜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판을 잘 짜주면 유리하기는 하죠. 그렇죠? 여러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판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은 수업 시간
내에서 여러분만의 역량과 자발성과 발전가능성과

노력하는 모습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2015 교육과정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고요.

교과세트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학교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독서하시고요.

고민하시고, 친구들과 협업 활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학업역량과 발전가능성과 전공적합성이

학생부에 드러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요.
활동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로 좋은 학생부

나오고요. 그리고 수능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시라고 하는 장기적인 어떤 전쟁터에서,

좀 표현이 웃기기는 한데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힘듭니다.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답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공하는 친구들은 존재합니다. 그 성공하는 친구들이

왜 성공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으로 가는 길 총 10장에 걸쳐서 정말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찰해보시고요.

끊임없이 소통하시고요. 끊임없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배경지식 키우셔야 돼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협업의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요. 배려와 공유의 정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학업역량의 성장 역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학생부는 정말로 좋아지게 되고요. 고3 겨울 때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합격증을 받게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 외에도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Q&A 게시판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은 자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대학입시 성공을 바라면서
대학으로 가는 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